

송원대 ‘마음의 관점 디자인하라’ 특강

‘온라인 마인드 특강 시즌2’ 오는 12월2일까지 진행
건강한 마음·마음 근육 키우는 방법 제시 큰 ‘호응’

송원대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온라인 마인드 특강 시즌2’을 열어 주목을 끌고 있다. 13일 송원대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마음의 관점을 디자인하라 시즌2’을 온라인 마인드 특강으로 진행중이다. ‘마음의 관점을 디자인하라 시즌2’는 코로나19 시기에 취업과 다양한 어려움

들로 우울한 마음에 빠져 있는 모든이에게 건강한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관점을 새롭게 디자인 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특강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일부터 12월2일까지 총 6차례의 강연을 진행하는 ‘마음의 관점을 디자인하라 시즌2’ 온라인 마인드 특강은 송원대가 주최하고 운영덕 국회의원, 광주매일신문, (사)코코넛이 후원

했다. 온라인 마인드 특강 세부 일정은 ▲9월2일 ‘마음의 상처 사고방식의 전환’ ▲9월9일 ‘진정한 자기계발은 마인드의 변화’ ▲9월30일 ‘생애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라’ ▲10월14일 ‘20대부터 창업 마인드가 필요하다’ ▲11월11일 ‘우리는 천재다’ ▲12월2일 ‘성공적인 삶이란’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매회 오후 8시에서 9시30분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특강은 취업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20대와 직장 생활 등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30-50대에게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송원대 철도경영

학과 임광균 교수는 “많은 학생들과 참가자들이 현재 빠져있는 어려움에서 벗어나 강연을 통해 올바른 마음의 관점을 키워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나가길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더욱 유익한 특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취업·창업·대학생들의 심리적 고통에 대한 주제를 다룬 마음의 관점을 ‘디자인하라 시즌1’에서는 총 992명이 참가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고, 이번 시즌2는 온라인 ZOOM(ID: 862 07 1 1921)에서 열리며, 자세한 내용은 (062-360-5952)로 문의하면 된다. /조태훈기자

추석 연휴기간 특별경계근무 돌입
북부소방, 23일까지 화재 대응 총력

광주 북부소방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특별경계근무 기간에는 소방공무원 302명, 의용소방대원 281명, 소방펌프차량 등 49대의 장비가 동원된다. 또 24시간 화재취약시설 화재예방활동과 소방관서장 중심 현장 대응 및 상황관리로 초기대응체제를 구축한다. 특히 추석연휴 기간 망월동, 효령동 등 묘역과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예방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화재취약대상의 자율안전관리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시설과 숙박시설 등 6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조사 및 화재안전컨설팅도 병행 실시했다. 김희철 북부소방서장은 “평소보다 한층 강화된 예방 및 출동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장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장터’가 13일 오후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북구청 관계자들이 관내 전통시장 상인들이 판매하는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다. /김애리기자

전남대·조선대 의대 지역인재전형 전북까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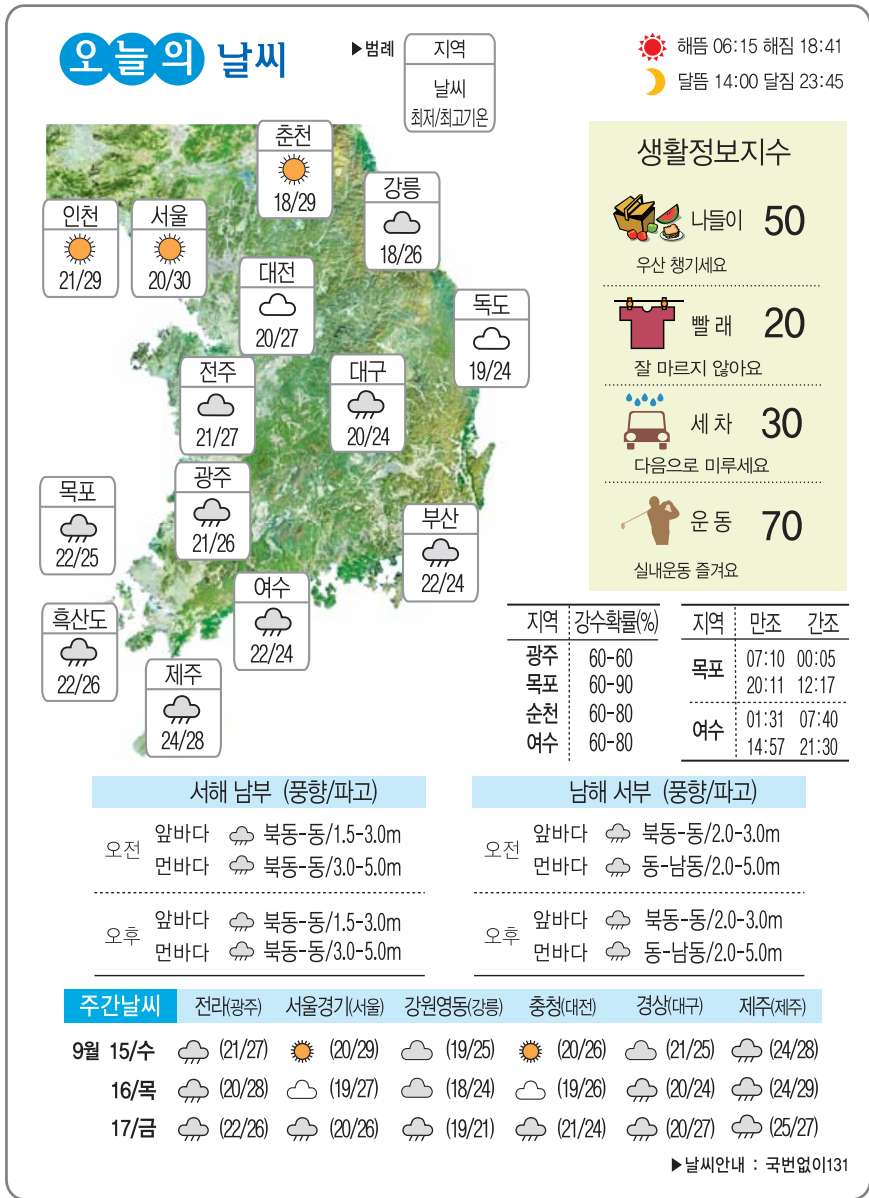
전북대 의대 전북에 국한 ‘대조’...불이익 지적

전남대에 이어 조선대에 의학 계열 지역인재전형 지역 범위를 전북까지 확대했다. 전북대가 의학 계열 지역인재전형 지역 범위를 전북으로 국한한 것과 대조적 이어서 광주·전남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온다. 13일 조선대 등에 따르면 조선대는 2022학년도 의대 정원 129명 중 38%인 49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조선대는 지역인재전형 지역 범위를

2021학년도까지는 광주·전남으로 국한했으나 2022학년도부터는 전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인재를 폭넓게 구하고자 의대 지역인재전형 지역 범위를 올해부터 전북까지 확대한다”며 “광주 전남 지역 대입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2023학년도에는 53%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전남대는 오래전부터 의대 지역인재전형 지역 범위를 광주·전남·전북으로

정했었다. 전남대는 2022학년도 의대 정원 125명 중 41%인 51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고, 2023학년도에는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61%까지 확대한다. 하지만 전북대 의대는 지역인재전형 지역 범위를 전북으로 국한하고 있어 지역 교육계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북대는 2022학년도 의대 정원 142명 중 53%인 75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는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 관계자들이 올 상반기 전남대를 찾아가서는 지역인재

전형 지역 범위를 전북까지 확대한 데 대해 시정을 촉구했고, 전북대를 방문해서는 지역인재전형 지역 범위를 광주·전남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전남대 관계자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답을 했고, 전북대 관계자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 관계자는 “전남대에 이어 ‘민립대학’을 자처하는 조선대도 의대 지역인재전형 지역 범위를 전북까지 확대함으로써 광주·전남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전남대와 조선대는 전북대를 설득해 지역 범위를 호남권으로 정하든지, 전북대가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지역 범위를 광주·전남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광주 남구의원들, 중앙당 요직 임명 잇따라

광주시 남구의회 의원들이 중앙당 고위직에 잇따라 임명됐다. 13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박희을 남구 의장이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에 임명됐다. 천신에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재정보권위원, 오영순 기획총무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부 위원장을 겸직한다. 조기주 예산결산위원장은 송영길 당 대표 1급 포상을 수상했다.

이에 대해 황도영 남구의회 운영위원장은 “남구가 ‘광주정치의 중심’이면서 ‘정치1번지’라는 것이 증명됐다”며 “그만큼 구의원들이 열심히 활동했다는 반증이 아니겠냐”고 언급했다. 박 의장과 구의원들은 임명 및 수감 소감에서 “남구발전과 더 나아가 광주 발전에 힘을 더하라는 의미로 더욱 더 겸손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보다 낮은 자세로 임기 마지막까지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태훈기자

동구, 장애인 주택 5곳 개보수 지원

광주 동구는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장애인 주택 5개소를 대상으로 개·보수 사업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전 손잡이·경사로 설치 ▲창호·세면기·변기 교체 등 주거 시설을 개선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는 지난 7월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장애인 가구 중 희망자를 접수받아 소득 기준·고령자 수·개보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최종 5가

구를 선정했다. 임택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들이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며 “장애인 가구에 대한 주택 개보수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사회적 약자가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장애인차량 무상점검 수리 서비스, 이동 보조기기 무상수리 등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최병진기자

광주매일신문 · 광주광역시문인협회 문학마당 작품집

광주抒情

광주매일신문과 광주광역시 문인협회가 공동으로 문학마당 작품집, 『광주抒情』을 발간했습니다. 이 작품집은 지난 4년여 동안 광주매일신문에 연재됐던 광주문인협회 소속 회원들의 시와 수필을 엄선한 것입니다. 작가들에게는 탐과 열정과 사색의 결과물인 작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발표의 장을 제공했고, 독자들은 아름다운 시와 사연이 깃든 수필을 대하면서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선물 받았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침울한 시기에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한 편의 시와 수필은 큰 위안으로 작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발행처

광주매일신문 · 광주광역시 문인협회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연락처

062-650-2078

값

18,000원

CMYK